

라스베이거스

가보기 좋은 장소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6.1km의 길이를 자랑하는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은 로마, 뉴욕, 파리, 이집트 등의 도시를 옮겨놓은 듯한 다양한 테마의 초호화 호텔들부터 대규모 쇼핑몰, 극장, 테마공원 까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와 명소가 밀집되어 있어요. 천천히 걸어보는 것 만으로도 라스베이거스가 선사하는 궁극의 화려함과 럭셔리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프리몬트 스트리트 익스피리언스: 프리몬트 스트리트를 걷다보면 마치 달빛을 주머니 속에 담은 것처럼 느껴세요. 5개 블록 거리에 걸쳐 이어지는 캐노피가 2,000만 개가 넘는 LED 조명으로 밝혀져 눈부신 빛의 쇼를 선사해요. 매시간마다 무료 Via Vision Light Show를 통해 스틸 넘치는 디스플레이와 활기 넘치는 음악을 감상해보세요. 인스타그램으로 멋진 사진을 찍어 다양한 색상과 패턴을 담아보세요. 라이브 밴드 공연과 길거리 공연자들의 에너지에 몸을 맡기세요. 독특한 선물과 기념품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상점들을 탐방하세요. 다양한 요리와 스낵을 제공하는 맛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기세요. 멋진 바와 라운지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도시의 분위기를 만끽하세요. 과거의 유산을 간직한 호텔과 랜드마크를 방문하여 라스베이거스의 역사를 탐험해보세요. 프리몬트 스트리트 익스피리언스는 밤새도록 생동감이 넘치는 부두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심포니 파크: 인스타그램에 라스베이거스 여행 인증샷으로 핫함. 특히 무지개 파이프라는 좋은 사진 명소가 있음. 라스베이거스 아트 박물관인 스미스 센터 앞에 위치해있음.

네온 박물관: 라스베이거스 호텔들의 역사들이 모여져 있는 곳으로, 라스베이거스 호텔 간판들이 모두 전시되어 있음. 네온 박물관도 다운타운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해 있음.

그레이트베이슨 국립공원: 그레이트베이슨 국립공원은 미국 남부 48개 주 중 가장 어두운 하늘이 있는 곳이에요. 국제 밤하늘 협회가 미국 최고의 밤 하늘로 인정 한 곳이니 얼마나 어두운 곳인지 감이 오시나요. 계곡과 산맥 그 어디서라도 아름다운 밤 하늘에 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년 천문학 축제가 열리니 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기간에 가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5월부터 9월까지 매 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무료 천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M&M 초콜렛 스토어: MGM 그랜드 호텔 옆에 위치한 M&M 초콜렛 스토어는 많은 분들이 필수 방문지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M&M 초콜렛 스토어에서는 4층 건물을 가득 채운 M&M 초콜릿과 다양한 기념품을 볼 수 있습니다. M&M 초콜렛 스토어 앞에는

M&M 초콜렛 모형들이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모형들과 함께 기념 사진 찍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코카콜라 스토어: M&M 초콜렛 스토어 바로 옆에 위치한 코카콜라 스토어 또한 많은 분들이 필수 방문지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스토어에서도 건물을 가득 채운 코카콜라와 다양한 기념품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코카콜라 스토어 2층에서는 세계 각국의 코카콜라 제품들을 맛볼 수 있는 시음대도 있으니깐요~! 세계 각국 새로운 맛들의 코카콜라 제품들을 시음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애틀롭 캐니언: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순간 작품이 만들어지는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의 결정체. 애틀롭 캐년! 나바호 현지 가이드님께서 동행 해야만 애틀롭 캐년은 입장이 가능합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애틀롭 캐년 투어에서는 누구나 전문 사진 작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나바호 현지 가이드님께서 카메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70억짜리 사진 '팬텀'과 같은 사진을 찍어보실 기회를 가져보세요.

그랜드 캐니언: 영국 BBC 가 선정한 죽기 전에 꼭 가봐야하는 관광 명소 1위! 그랜드캐년! 그랜드캐년 이스트림 리판 포인트에서 그랜드캐년의 웅장함을 배경으로 인생샷을 찍어보세요! 자연의 웅장함을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 사우스리프로 이동합니다. 그랜드캐년 박물관에서 세월의 자취를 살피고 구경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후, 그랜드캐년 사우스리프의 야바파이 포인트 & 매더 포인트 를 가이드님과 함께 도행하며 대자연의 웅장함을 한눈에, 그리고 사진에, 가슴에 담아가시게 됩니다. ※ 옵션 투어 (헬기, 경비행기) 진행 시, 사우스리프 관광시간을 할애해서 진행됩니다.

호스슈 밴드: 그랜드 캐니언 투어에서 방문할 수 있습니다. 호스슈 밴드는 콜로라도강이 흘러가는 곳에 말발굽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 그 모양에 따라 '호스슈'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곳인데요. 300m 이상의 절벽과 콜로라도강이 어우러져 완성된 너무나도 멋진 풍경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애틀로프 캐니언: 이곳은 인디언들이 양몰이를 하다가 잃어버린 양을 찾던 도중 발견한 곳이라고 하여, 양의 이름을 따서 '애틀로프 캐니언'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애틀로프 캐니언은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인디언 가이드 없이는 출입 금지이기 때문에 현지 여행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해요. 애틀로프 캐니언은 끝없이 펼쳐진 사암 협곡의 색과 형태가 모두 다르고,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매력적인 풍경이기 때문에 진짜 꼭 한번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후버 댐 (Hoover Dam): 콜로라도 강에 위치한 대형 댐으로, 라스베이거스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역사적이고 인상적인 건축물로 관광 명소입니다.

아이러브슈가: 이곳은 젤리와 사탕으로 가득 차 있고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기

분을 느끼게 했어요.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좋아요. 특히, 라스베이거스의 다른 주요 명소들과 가까워서 여행 일정 중에 잠시 들러 구경하기 딱 좋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여러 가지 컬러풀한 젤리와 사탕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각 섹션마다 다양한 테마로 꾸며져 있어서 한국에서 보지 못할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젤리와 사탕을 구경할 수 있었어요. 포장된 제품들도 많아서 젤리를 좋아하는 어른이나 어린 지인들을 위한 기념품으로도 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자유롭게 사탕을 퍼 담아 무게로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궁금한 맛이 있다면 한두 개씩 골라서 사 먹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았어요. 2층에는 캔디 마트 인 바라는 곳이 있는데 저희는 이용해 보지 않았지만 사탕을 주 재료로 한 바가 운영 중이었어요. 들어가기 전에는 초콜릿으로 만든 디저트도 판매하고 있었어요!

해보기 좋은 체험

분수쇼&화산쇼: 세계 3대 분수쇼로 유명한 형형색색의 조명과 흥겨운 음악이 어우러진 벨라지오 호텔의 분수쇼와, 용암의 분출을 재현한 미라지 호텔의 화산쇼는 라스베이거스를 대표하는 볼거리로 자리매김함.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인만큼 화려한 극치를 보여주는 서커스쇼인 라스베이거스의 3대 카쇼, 오쇼, 르레브도 놓쳐서는 안될 하이라이트임. 카 쇼와 오 쇼는 주로 오후 7시와 오후 9시 30분 공연이 진행됩니다.

하이 롤러: 라스베이거스 스카이라인을 360도로 볼 수 있는 하이 롤러 관람차. 대관람차도는 소요시간은 30분 정도 됩니다. 바로 옆에 하이롤러 뿐만 아니라, 링크 프로미나이드 길을 가로질러 가는 라스베가스 액티비티 "링크 줌라인"도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브리슬콘 소나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캘리포니아에 있다는 거 아시나요. 브리슬콘 소나무는 4천 년 이상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소나무를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아직도 잎이 있는 푸른 소나무와 조각 같은 죽은 나무들을 볼 수 있어요. 고대 브리 스콘 소나무 숲은 이스턴 씨에라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인근에 있으며 화이트 마운틴에 자리하고 있어요. 대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리먼 동굴 투어: 그레이트베이슨 국립공원에는 멋지고 흥미로운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리먼 동굴이에요. 바다에서 가장 긴 동굴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소 중에 명소입니다. 리먼 동굴은 투어로만 입장이 가능하세요. 엄청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30일 전부터 예약 가능하며 매진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투어는 2가지로 60분짜리와 90분짜리가 있습니다.

낙시와 잣 채집: 네바다주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낙시가 허가된답니다. 라이선스를 구입 후 그레이트베이슨 국립공원에서는 낙시를하실 수 있어요. 섭취하는 것보다는 잡아보는

즐거움으로 낚시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Lehman Creek , Baker Creek , Snake Creek 지역에서 낚시를 즐기실 수 있어요. 그레이트베이슨 국립공원에서는 잣 채집으로 풍성한 가을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잣 채집을 하실 경우에는 공원에서 규정한 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나무를 꺾거나, 자르거나, 당기거나 식물은 손상시키는 행위는 하시면 안 돼요. 많이 가져오실 수는 없으니 재미로 즐기셔야 합니다.

조슈아트리 투어: LA의 조슈아트리를 볼 수 있는 국립공원 투어인데요. 여기는 개인적으로도 갈 수 있지만, 이왕이면 현지 투어사를 이용해 당일치기 여행으로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는 렌터카로 다녀오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꽤 넓은 국립공원인 데다가 들어가면 인터넷이 안 터지기도 하는 지역이 나오기 때문에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현지 여행사와 함께 조슈아트리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조슈아트리는 선인장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식물 중 하나인데요. 미국 남서부 특히 캘리포니아주, 애리조나주, 유타주, 네바다주의 고도 400-1,800m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조슈아트리 국립공원에 밤이 찾아오면 인공조명이 없기 때문에 많이 어두워지는데요. 너무 어두운 밤에는 가이드 없이 다닐 수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일일 투어 또는 패키지로 가이드와 함께 다녀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넓고 어두운 곳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며 다양한 스팟들의 여러 시간대 풍경들을 감상해보세요! LA 여행지 조슈아트리 국립공원을 꼭 가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바로! 미국의 은하수를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투어에서 은하수를 잠깐 보고 나니,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1박 2일로 캠핑을 하며 더 길게 여행하고 싶은 지역이 되었답니다. 조명을 하나둘씩 끄니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 것 같은 풍경이 펼쳐졌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풍경에 바로 카메라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때는 삼각대만 있으면 별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요. 별 사진 촬영을 위한 간단한 팁! 플래시는 꼭 꺼주시고, 셔터스피드는 3초 이상으로 설정해 빛을 확보해주면 됩니다. 이때 셔터를 누르면서 카메라가 흔들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핸드폰과 카메라를 블루투스로 연결하거나 타이머를 이용하여 촬영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알면 좋은점

- 그레이트베이슨 국립공원을 방문 시에는 꼭 날씨를 확인하고 가시길 추천드려요. 늦봄과 여름에는 날씨가 많이 뜨겁고 더울 수 있으며 높은 고도는 눈이 녹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트베이슨은 네바다에 있는 곳으로 사막이에요. 습도가 낮고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름에는 맹렬한 뇌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해요. 높은 고지는 눈도 볼 수 있다고해요.

- 우선 미국 서부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서부는 대중교통이 잘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렌터카 이용을 추천드리는데요. 한국에서 미리 예약하면 현지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추가로 미국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국제면허증,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 이렇게 3가지를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도로 사정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라 운전하는데 어렵지 않은 편이에요'

- 라스베가스는 주요 관광지가 스트립이라는 메인 도로 주변에 거의 몰려있습니다. 덕분에 다니기 굉장히 편해요. LA와는 달리 버스 1~2개만 타면 대부분을 다닐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메인스트립에서 벗어난 곳을 가거나 숙소가 그런 곳에 있다면 차 없이는 다니기 불편합니다.

- 버스는 rideRTC라는 앱에서 이용권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이용권은 \$8로 구매한 뒤에 앱에 나오는 QR코드를 버스 타실 때 찍으시면 됩니다. 실물티켓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보관하기 귀찮고 거스름돈 안 준다고 해서 저는 앱으로 구매했습니다. 버스 실시간 상황은 LA에서랑 마찬가지로 Transit 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교통체증이 심해서인지 생각보다 버스가 늦게 올 때가 있더라고요.

- 버스 말고 모노레일도 있습니다. 조금 더 비싸고 노선이 약간 제한적인 대신에 자주다니고 교통체증도 안 겪어서 목적지만 맞으면 좋아보이더라고요. 버스는 막히거나 사람이 꽉 차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Park MGM에서 코스모폴리탄 호텔까지 무료 모노레일도 있다고 합니다.

- 쇼랑 호텔 구경을 많이 다니실텐데 구역을 임의로라도 나눠서 다니시는걸 추천드려요. 코카콜라 스토어, m&m's 스토어, 허쉬 스토어 등이 있는 뉴욕뉴욕 호텔 근처에서 벨라지오 호텔이나 베네시안 호텔까지 생각보다 멀니다. 구글맵에서 보는거랑 느낌이 달라요. 설령 거리가 멀지 않더라도 대낮에 햇빛이 엄청 뜨겁고 날씨가 덥습니다. 도보로 계속 돌아다니시면 지칠거예요. 한 구역 가서 도보로 몇 개 구경하고 버스나 차타고 다음 구역 가서 구경하고 하는 식으로 다니셔도 좋을 것 같아요.

- 걷거나 대중교통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스트립 근처로 잡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구경하실 곳과 가까운 곳이면 더 좋죠. 벨라지오, 플라밍고 호텔 주변이면 약간 북적일 수는 있어도 위치는 참 좋습니다. 스트립 메인도로 인근에 있다면 버스나 모노레일 타고 이동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끝에 있는 엑스칼리버 호텔이나 원, 양코르 호텔까지도 이동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보여요.

- 9월 중순~말에 갔는데 낮에 더웠습니다. 햇빛이 따갑더라고요. 대신 습도는 낮아서 그늘에 있으면 좀 괜찮습니다. 밤에는 춥지도 덥지도 않아 반팔입고 다니면 될 정도였습니다. 라스베가스는 실내에 구경할게 많으니 적절하게 실내와 이동하는 시간을 배분하시고 너무 뜨거운 낮에는 실내 구경하거나 호텔에서 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Las Vegas North Premium Outlet이 크고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실외이고 면적이 넓어서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돌아다니셔야할 것 같더라고요.
- Las Vegas South Premium Outlet도 있습니다. 여기는 실내고 규모는 North보다는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윈, 앙코르 호텔 건너편에 Fashion Show Las Vegas라고 하는 실내 쇼핑몰이 있습니다. Macy's나 Nordstrom같은 백화점도 있고 푸드코트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매장이 있고 꽤나 넓고 쾌적합니다.
- 명품이나 희귀 아이템 좋아하시면 시저스 호텔 쪽에 있는 The Forum Shops at Caesars을 추천한다고 들었습니다. 명품 매장도 많고 일반 매장에서 구하기 힘든 고가의 제품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냥 명품 매장은 라스베가스 다른 호텔이나 거리에서도 비교적 쉽게 볼 수 있습니다.
- The Shops at Crystals도 명품 매장이 몰려있습니다. 외관도 예쁘고 꾸며져있어서 지나가면서 보기 좋습니다.
- 지인들 줄 기념품은 코카콜라 스토어, m&m's 스토어, 허쉬 스토어에서 샀습니다. 전부 뉴욕뉴욕 호텔 근처에 있습니다. 코카콜라 립밤이 친구들한테 가볍게 선물하기는 좋습니다.